

몽골에 유치원·인쇄소 건립

(사)한몽불교교류협회, 몽골 지원 사업 확정

대구 지역 불교계 인사로 구성된 (사)한몽불교교류협회(이사장 지성·동화사 주지, 이하 협회)가 몽골불교 진흥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협회는 3월 28일 인터불고 호텔에서 50여명의 이사 및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갖고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유치원 건립사업과 간단사 부설 인쇄소 개설 지원사업, 몽골의료봉사 및 성지순례법회를 2006년 주요사업 계획으로 확정했다.

협회는 어린이 교육사업에 불교계가 나서서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몽골 불교계의 요청에 따라 수송인원 50여명 2회급 규모의 유치원을 미화 15만 달러를 들여 몽골북부의 중심지인 울란바토르 간단사에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몽골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유치원으로 상류층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상황. 또 티베트어로 된 경전을 몽골어로 번역해 일반 불자들에게 보급할 수 있는 인쇄소를 개설하기 위한 시설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최신 인쇄소와 같은 규모는 아니더라도 몽골불교출판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최소한의 인쇄소 건립이 필요하다.

협회는 이 같은 사업을 위한 자금마련 계획도 구체화 했다. 우선 오는 4월 25일 오후 5시 인터불고 호텔 컨벤션홀에서 800여명의 지역불교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몽골불교 진흥을 위한 유치원, 인쇄소 설립 지원 후원의 밤' 행사를 갖기로 했다. 행사에는 인기가수 현철과 남궁옥분,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등이 출연하는 문화공연과 만찬이 펼쳐진다.

협회 이사장 지성 스님은 "이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당장 어려움이 없지 않지만 조금씩 노력하면 한 나라의 불교건에 초석을 세우게 된다"며 "큰 보람을 갖고 지역불자들이 십시일반 동참해줄 것"을 부탁했다. (055) 985-4404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4월25일 '후원의 밤' 행사

성지순례·의료봉사도 계획

설은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몽골을 방문 성지순례와 의료봉사 활동도 벌인다. 여기에는 영남대학교 의료원 불교회와 대구불교약사회가 참석하는 30명 규모의 의료봉사단을 포함한 60여명 이상이 참여할 계획이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 머물

대구불방 한마음 합창제 한복명장 패션쇼도 진행



대구불교방송(사장 범조)이 개국 10주년을 기념해 '2006 한마음합창제 및 김복연 한복명장 패션쇼(사건)'를 3월 25일 동구체육문화회관에서 개최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한마음 음악제는 동화사 주지 지성·대구불교방송사장 범조·총괄본부장 장적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 13개 불교합창단이 출연해 찬불가의 아름다운 선율을 소개했고, 김복연 한복명장 패션쇼는 전문 모델이 아닌 50여명의 불자들이 전통 한복의 우아한 아름다움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역사·시설·교육 전국 최고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사장 법혜)이 수탁운영 하는 대구수성구청소년수련관(관장 권한대행 선지)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도로를 끼고 5분쯤 들어간 산 밑에 자리하고 있다. 입구에 불교기를 상징하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주황색의 기둥이 서 있고, 실내에는 연꽃 사자들이 걸려있어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 또 2005 시범청소년시설로 지정됐음을 알리는 현수막이 뭔가 새로움을 보여줄 것 같은 호기심을 자극했다.

"안녕하세요!"

수련관 입구에서 만난 어린이 서넛이 예쁘게 인사를 한다. 수련관을 출입하는 어린이들의 바른 인사성도 새롭다. 1996년 5월에 개관한 전국 1호 청소년 수련관이다보니 그다지 최신 설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687개의 전국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위원회가 인정한

향상 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인성발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이다.

이 밖에도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자원봉사활동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의 프로그램과 댄스, 풍물, 마술 등의 동아리활동을 주선하면서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역으로 밝고 바르게 자라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의 이런 다양한 목적사업은 100개가 넘는 유료프로그램의 운영으로 가능하다. 유료회원만 2000명에 달하는 수성구청소년수련관은 운영지급도가 90%에 달한다. 매일

100개 넘는 프로그램 운영, 자립도 90%

불교관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큰 호응

전국최고의 청소년수련관으로 선정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여기, 해딩! 좋아."

평일인데도 600여 평 규모의 수련관 곳곳에는 어린이들의 해맑은 소리가 들린다. 실의 미니축구장은 막 농구 경기를 마친 어린이들이 축구를 하기 위해 나왔고, 강의실마다 영어, 애니메이션, 수학수업 등이 한창이다.

또 1층에는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해오름 교실'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 합동자문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려는 희망의 뜻으로 이름 붙여진 해오름 교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방과후 학습지도와 생활관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4학년부부터 중1까지 45명의 학생들이 매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참가해 숙제는 물론 수학 영어 국어 등의 기본 교육과 애니메이션 독서토론, 미술, 재즈댄스, 수영, 문화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해오름 교실은 학습능력

200~300여명, 주말 2500여명의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청소년수련관이 이처럼 각광받는 이유는 뭘까?

김제원 사무국장은 "인간중심의 불교관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을 이유로 꼽았다. 김 국장은 "일반 문화센터가 운영하는 강좌들과의 차이점은 자신의 마음을 중시하는 불교관에 입각한 단 30초의 생활교육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30초 생활교육은 분기별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기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끈다. 지금은 "바른말 고운말 사용하기" 교육을 모든 강좌에 적용하고 있다.

국장은 "연꽃사진을 보고 스님을 보는 것만으로도 향이 배듯 자연스러운 변화가 오는 것 같다"며 "수련관을 잘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포교"라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해인율원, 자운 율사 계맥 전계식

경암·해만·범산·영명 스님 계 받아



왼쪽부터 범산, 경암, 무관, 해만, 영명 스님.

자관 스님으로부터 자운대율사의 계맥과 강맥을 이어받았다. 자관 스님은 전계를 받는 전계제자들에게 "계율을 목숨같이 호지하고 자운대율사의 지계정신과 율학연전에 더욱 힘쓰라"고 당부했다.

배지선 기자

나무 1만3천그루 심어

해인사 "가야산 환경복원"

자작나무와 다투며, 홍송, 충송 나무, 윗나무 1만3000여 그루가 가야산 해인사 홍류동 계곡 상류에 새로 터를 잡았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현응는 3월 25일 마장동, 초막동, 장자동 일대에서 불맞이 가야산 숲 복원 식목행사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날 심은 자작나무는 팔만대장경판 제작의 주 재료며, 윗나무는 경관보존을 위한 철의 재료, 다투나무는 전통한지를 만드는 원료다. 충송나무로는 목탁을 만들고, 홍송은 전통건물의 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 가야산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2만7000여 그루의 자작나무와 윗나무를 심어온 해인사는 올 해 1만3000그루를 심고, 연차적으로 계속 나무심기를 진행해 홍류동 계곡의 자연환경 보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배지선 기자

"황기건 불자 도와주세요"

대한불교청년회 대구지구(지구장 이만희, 이하 대불청대구지구)가 어려움에 처한 지역 청년불자 돕기에 나섰다. 대불청 대구지구 황기건 부회장 돕기에 나선 것.

황기건 부회장은 3월 17일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생계를 유지해오던 식당을 모두 잃고 재기의 발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가족 7명의 가정으로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인 딸과 중3 초등학교생 아들들

배지선 기자

두고, 암 수술을 받은 어머니와 아버지까지 모시고 있어 당장의 생계를 꾸려가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황기건 불자는 유가사 청년회를 창립한 창립멤버로 2대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대불청 대구지구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만희 지구장은 "지역불자들의 정성을 기다린다"며 십시일반 도움을 당부했다. 이만희 지구장 : 016-520-5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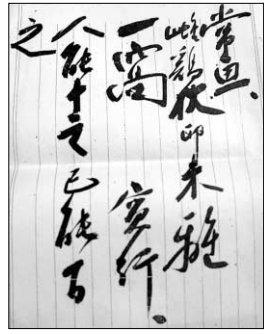
배지선 기자

"남 모르게 더 열심히 행하라"

무명당 범룡 대종사 열반 100일 추모제

'평소 생각하기를 안 탐이 알을 품음에 떠나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행함에 있어서는 다른 이가 10을 행할 때 나는 남모르게 100을 행하라.'

지난해 12월 15일 동화사 비로암에서 임직관 무명당 범룡 스님(前 조계종 전계대화상)이 편지의 주인공이다. 스님은 "스님의 삶이 가장 본받을 만하다"는 부친의 말을 듣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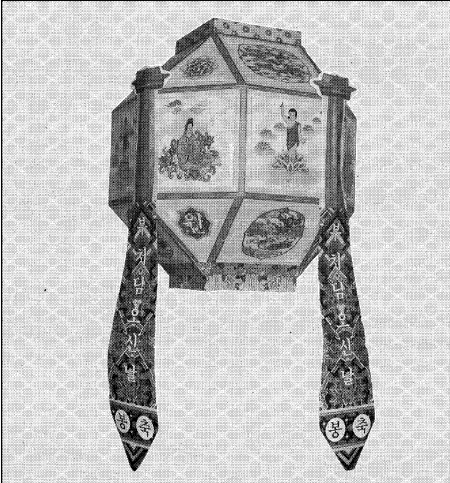


범룡 스님 속가 아버지가 스님에게 보냈던 편지.

출가를 결심했고 수행자의 모범을 보였다. 범룡 스님은 부친의 이 편지를 거울삼아 수행 정진했다.

이 편지글은 3월 24일 비로암에서 봉행된 범룡 스님의 100일 추모제에서 비로암 감원 수련 스님이 공개했다. 수련 스님은 "비문이나 수각에 이 글을 새겨 모든 불자들이 따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지선 기자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 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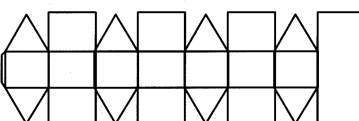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물담고 몇 스키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아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 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마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 하여 불속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한 다원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할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결합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현우기획

전화: (043)877-6464 팩스: (043)877-8239 핸드폰: 016-552-9360

* 우체국 013706-01-003311 (예금주: (주)국민핀엔텍)
* 통 령 415051-51-000057 (예금주: (주)국민핀엔텍)

천안통. 천이통. 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리므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으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이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영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블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물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